

재가불교 운동의 거목 장경호 거사 삶과 수행

1백여만부에 이르는 불교서적 출간, 50여 곳의 군 법당 건립, 불교방송 설립 지원, 최초의 불교 교양대학 설립, 대한불교진흥원 설립... 우리 불교사에 남겨진 이 같은 발자취들은 하나같이 동국제강 그림 장엄주인故 장경호 회장으로 부터 시작된다.

장 회장 입적 30주기를 맞아 그의 일생과 수행 과정을 담은 평전 <이 땅의 유마, 대원 장경호 거사>가 출간됐다. 평생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에 매진하고, 이 땅에 불국토(佛國土)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한국 재가 불교 운동의 사표로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899년 부산에서 태어난 장경호 회장은 17세 되던 해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됐다. 이후 3·1운동에 참여한 뒤 경찰에 쫓겨 일본으로 건너간 장 회장은 그곳에서 종교서적을 탐독하며 '불교'를 다시 만난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 노릇 하겠구나'라는 결심으로 고국에 돌아 온 그는 봉도사 구하 스님에게 '만법귀일(萬法歸一) 입귀하(一歸何處)'라는 평생의 화두를 받았다.

27살에 처음으로 통도사에서 안거를 난 후 "상업에 종사해 크게 돈을 벌어 불교에 바치겠다"고 맹세한 그는 1929년 첫 사업체인 대원양행을 설립한다.

이후 점심 한 끼 사 먹지 않고,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 쓴 장 회장의 노력 덕분에 이 사업체는 오늘의 동국제강으로 거듭났다.

그는 사업가로서 뿐만 아니라 재가 수행자로서도 뒤지지 않는 구도열을 내뿜었다. 민중 한낱 스님을 찾아 깨달음의 길을 구했고, 평생 정월 초하루 불공을 빠뜨리지 않았다.

특히 '나이 육십이 되면 사업에서 물러나 수행에 전념하겠다'던 결심을 잊지 않고 62살이 되던 1960년부터 10여 년간 부산 금정산 무위암에서 안거를 지낸 일은 깨달음에 대한 그의 신념을 잘 보여준다.

대중 포교에 미친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문서포교를 위해 불서보급사를 설립하고 불교서적을 펴냈으며,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대원정사를 건립해 도심포교의 거점으로 삼고 불교계 최초의 불교전문 교양대학과 시민선방을 개원했다. 갑작스런 회장암 선고에도 그는 목숨을 부지할 생각보다 포교를 고민했다. 그가 '불교 중흥을 위해 써달라'는 유언과 함께 남긴 사재 30억원은 대한불교진흥원 건립의 초석이 돼 포교 현장에 두루 그 빛을 발하고 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不二)의 철학으로 동국제강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하고, 대중포교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장 회장. 평생을 통해 장 회장의 부처님 법을 따르겠다는 굳은 신념과 초심을 잃지 않은 한결같은 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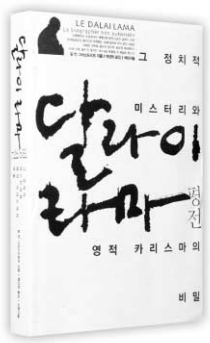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채선(箕城峽峯)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럽러워 초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행(苦行)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사서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 사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송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달라이 라마 평전
질 반 그라스도르프 지음
백선희 옮김 | 아미이슬 | 1만5천원

"또 달라이 라마야?"

많은 사람들이 책 제목을 보고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달라이 라마는 평화나 자비, 관음, 명상, 깨달음 등의 단어로 포장된 채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국내 번역본만 50여 종이 넘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상품성'이 뛰어난 인물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묻는다. 당신은 달라이 라마와 그의 조국 티베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나고, 또한 티베트인들에게 달라이 라마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느냐고. 달라이 라마의 행동 하나, 말 한 마디에 담긴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를 키워낸 티베트와 그 문화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이 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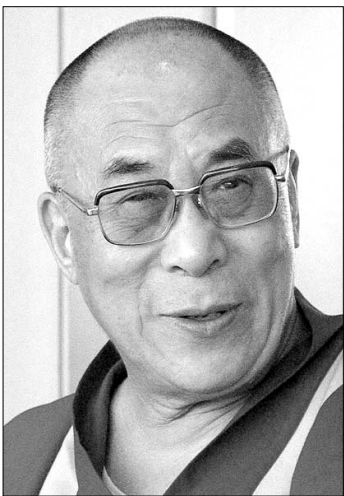
티베트 전문가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질 반 그라스도르프는 1993년부터 10여 년간의 방대한 자료조사와 주변인물과의 인터뷰, 대담 등을 통해 한 권의 평전을 탄생시켰다. 기존의 달라이 라마 관련 서적들이 그의 법문이나 수행법만을 다루었던 것에 반해 이 책은 단순한 개인의 삶을 되짚어간 전기기 아닌, 달라이 라마를 통해서 본 티베트의 정치·종교적 현실을 냉정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가치를 가진다.

티베트를 모르고 어찌 달라이 라마를 말하랴!

티베트인들의 영적·정치적 지도자를 뜻하는 '달라이 라마'는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사진)에 의해 세계 평화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조국 티베트가 권력의 폭압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3대 달라이 라마가 통치하던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티베트는 자신들만의 문화와 역사를 가진 독립 국가였다. 자연히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도 티베트인들에게서 벗어나지 않았고, 벗어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1933년 제13대 달라이 라마의 열반 후, 티베트는 역사의 소용돌



상을 받게 됐다. 이제 티베트인만의 지도자가 아닌,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조국은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 평화의 상징' 되기까지 티베트 정치·종교적 현실 분석 고뇌하는 인간적 면모 드러내

이에 휩쓸리게 된다. 독립을 원하는 티베트인과 티베트를 자국의 영토로 묶어 두려는 중국인 사이에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한 기운이 팽배했다. 그 어떤 사람의 희생도 원하지 않았던 텐진 가초는 피난길에 올랐고, 인도 다람살라에서의 고달픈 망명정부 생활이 시작됐다.

하지만 소수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픈 역사는 달라이 라마의 역할과 위상도 바꾸어 놓았다. 용서와 자비, 대화와 비폭력으로 자신들의 자유와 평화를 얻고자 했던 달라이 라마는 전 세계를 방문해 이를 알렸고, 비폭력·평화주의의 사표로서 1989년 노벨평화

상을 받게 됐다. 이제 티베트인만의 지도자가 아닌,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조국은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

책에서는 13대 달라이 라마의 열반에서 시작해 텐진 가초의 탄생과 달라이 라마의 환생으로 선정돼 교육을 받는 과정, 수많은 수행자들을 이끌고 인도로 망명하게 되기까지의 70여년을 연대기적으로 엮었다. 여기에 주변국과의 갈등과 티베트인들의 생활상, 신학과 환생 등 티베트 불교의 특징도 생생하게 그려 놓았다.

'정치적 미스터리와 영적 카리스마의 비밀'이라는 책의 부제에서 보듯 신비의 베일이 벗겨진, 고뇌하는 정치인이자 수행자로서의 달라이 라마의 모습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1186년 지어진 앙코르 타 프롬 사원.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무 뿌리에 둘러싸여 버린 이 불교사원에서는 '폐허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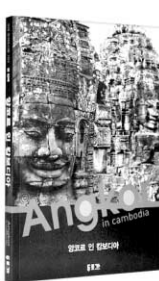
'폐허의 미학' 숨이 멎는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앙코르 사원 여행지침서

캄보디아 앙코르 타 프롬 사원, 자야바르만 7세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1186년 세운 이곳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제 거의 허물어진 폐허가 됐다. 하지만 아직도 이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커다란 나무들이 사원의 벽과 기둥 전체를 휘감고 있는 모습이 '폐허의 미학'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10세기를 전후해 막강한 세력을 자랑했던 앙코르왕국의 크메르왕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는 앙코르 와트를 비롯해 100여개가 넘는 사원을 남겼다. <앙코르 인 캄보디아>는 세월이 무거워 견디고 이 곳을 지키고 있는 앙코르의 사원 여행을 위한 지침서다. 앙코르의 사원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사원의 성립 배경과 역사, 내부 동선을 볼 수 있는 도면과 감상 포인트 등을 설명한다.

책을 지은 이는 고대 문명 탐사 모임 '유목민루트'. 철저한 탐사와 취재를 통해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기 쉬운 감상 포인트를 간추려 담았고 앙코르와 여행의 거점 도시인 씨엠티와 속스, 식당, 시장 등 실질적인 여행 정보도 함께 소개한다. 이들은 앞으로 미얀마 파간과 스리랑카, 캄보디아의 경우 등 고대 유적도 시를 안내하는 시리즈도 펴낼 예정이다.



앙코르 인 캄보디아
유목민루트 지음 | 두르가 | 1만3천원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역경의 체증을 통해 깨어주는 이 시대의 아부 선사!
대원 문체원 선사(경강 선사상인 인가계좌)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일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위빠사나 수행 이렇게

"왜 수행합니까? 어떻게 수행합니까? 수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태국의 선사 아잔 차 스님(1918-1992)은 이렇게 답했다.

"왜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잘 먹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좌부 불교의 대표적인 선사로 알려진 스님은 평생을 고향 근처의 숲에 머물며 책 콘필드와 조셉 골드슈타인, 사본 잘즈버그 등의 제자들을 길러냈다.

아잔 차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의 핵심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는 것이다. 스님은 아



아잔 차 스님의
오두막
책 콘필드 ·
폴 브라이언 지음
침묵의향기
8천5백원

무 것도 붙잡지 말고, 심지어 깨달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호흡을 지켜보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꾸준히 '알아차림(mindfulness)'을 얻어내야 한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싫어하고 좋아하는 감정, 즐거움과 고통을 알아차림으로써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놓아 버리는 것이다.

1977년 <고요한 숲속의 연못>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을 새롭게 번역한 <아잔 차 스님의 오두막>은 바로 이러한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다. 관념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수행할 것을 강조한 스님은 쉽고 평범한 언어로 제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범음범패 하계교육 대특강 안내

1. **자격** : 스님 및 교인 포교사 일반불자 불교에 관심이 있는 자
2. **일차별 교육내용**
 - ◆ 8월 29일: 사물다루는 법(복, 태징, 목탁, 요령) 39위 신중작법 외
 - ◆ 8월 30일: 구병시식, 안택기도 외
 - ◆ 8월 31일: 화청(회심곡), 종사관육 점안의식, 용왕불공, 방생의식 외
 - ◆ 9월 1일: 시다라(상가염불하는법), 바라춤 종사영반
 - ◆ 9월 2일: 요잡바라, 천수바라, 관음시식 외
3. **교육기간** :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 **교육비** (교재비 별도)
 - 1) 200,000원정(숙박포함)
 - 2) 1일 수강시: 50,000원**※ 비디오 전편 구입시 교육 무료**
5. **모집일시** : 8월 29일 오전 10시
6. **교육장소** : 본 대학 강의실
7. **준비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세면기
8. **문의처** : 전통불교의식대학
총무소 062) 362-8604
011-624-8604
9.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노연숙)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9-14
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노혜공

무문관 선원 후원회원 모집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 선원은 1992년 4월에 개원한 후 2002년 7월까지 10년간을 1년에 2회씩 각각 5개월과 1개월씩 안거기간을 정하여 두 번 불출 안거 정진을 마치고 새로 증설한 부여 제 2부문에 함께 다시 1차 3년 결사안거를 2002년 8월에 시작하여 금년 2005년 오는 8월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2005년 8월부터 제 2차 3년 결사 안거를 하고자 하나 경제상 어려움이 많아 여러 신도님들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후원회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기 간 : 2005년 10월 - 2008년 9월까지 (3년간)
◆ 의 비 : 1개월에 1만원
◆ 송금계좌번호 :
- 우체국 310623-02-033475 · 예금주 : 문판요(정영)
◆ 부여 제 2부문관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은산 초등학교 매화분교)
- 전화 041)833-4963

계룡산 대자암
공주시 계룡면 중창리 52번지 감사 대자암
전화 041)857-5880 / 857-3604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에설판 사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난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전연의 사물장단(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영산범음집 한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반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관상학특강반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 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중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